

# 이해찬 등판...안정론이나 세대교체냐

### 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각각 8명 등록 예비경선 D-3...컷오프 통과 누가 될까 관심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5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완료되고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1차 관문인 예비경선(컷오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21일 당대표 후보등록 결과, 이해찬(7선)·이종걸(5선)·김진표·송영길·최재성(이상 4선)·이인영(3선)·박범계(제선)·김두관(조선) 등 8명이 등록해 오는 26일 예비경선을 치른다.

22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등 중앙위원 470여명의 직접투표를 통해 이들 8명 중 3명에게만 본선 진출권이 주어진다. 2.6대 1의 경쟁률이다.

특히 출마를 저울질하던 이해찬 의원의 막판 등장에 당권경쟁 구도가 크게 흔들리며 현존 양상을 띠고 있다. 당장 '친문(친문재인) 주자'를 지임했던 일부 후보들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노무현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은 속칭 친문·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 격이다. 지지층이 겹치는 주자들이 이해찬 의원으로 표가 쏠리지 않을까 하고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후보 간 불밀 연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 안팎에서는 세대교체론과 안정론이 맞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당심이 이해찬 후보의 정책 역량과 경륜의 가치를

더 중시하느냐, 역동성과 변화, 그리고 젊은 이미지를 더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예비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 후보로 이해찬·김진표·송영길 의원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이종걸·이인영 의원 등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당내 기반을 바탕으로 컷오프 통과를 노리고 있으며 친문 세력 사이에 교통정리가 잘 이뤄질 경우 최재성의 의원직 진급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김두관 의원도 이번을 노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비경선에 참여하는 중앙위원들의 표심을 좀처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컷오프의 최대 변수다. 실제로 2년 전인 2016년 예비경선 당시 컷오프 통과가 무난해 보였던 송영길 의원은 1표 차로 4위에 그쳐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한편, 모두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

거와 관련해서는 설훈(4선)·유승희(3선)·박광운·남인순(이상 제선), 박정·김해영·박주민(이상 조선) 의원, 황명선 총남 논산시장 등 8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설 의원은 앞서 같은 민주당하국민연대(민평련) 소속인 이인영 의원과 당대표 후보 단일화를 논의한 끝에 이 의원에 양보한 바 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 선거에 9명 이상이 도전하면 예비경선을 통해 8명으로 줄일 방침이었으나, 총 8명이 후보등록을 함에 따라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열리지 않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1명)와 최고위원(5명)을 각각 분리해 선출한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여성 할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 후보 2명(유승희·남인순) 가운데 더 많은 득표를 한 후보는 5위 안에 들지 못해도 최고위원이 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국회, 다시 '전운'

### 23~25일 인사청문회...24일 '기무사 문건' 국방위 회의

새롭게 상임위를 구성한 국회가 이번 주 잇달 인사청문회를 열어 경찰청장·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선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23일)와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23~25일)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잡혀 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자 20대 국회 후반기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박근혜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춧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파르게 형성되면서 최근 정상화한 국회가 다시 빼겨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특위는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 24일과 25일에는 각각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특히 김 후보

자에 대해 철저하고 꼼꼼한 검증을 베풀고 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개혁 비서관과 문재인 대선후보의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만큼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 경찰청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불거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특히 지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내사 사실이 김 위원장 취임 첫날 언론에 공개된 것을 철저히 파지겠다고 버리고 있다.

한편, 인사청문 정국과 함께 24일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간 날 선 공방의 장이 될 전망이다. 기무사가 작성한 춧불집회 당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

# 정동영 "최저임금 인상 신중해야"... 최경환 "전북경제 살리겠다"



"평화당 구원자는 나" 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지난 20일 전주 MBC 공개홀에서 열린 토론회를 마치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경환·유성엽·정동영 의원과 조배숙 당대표, 민영삼 최고위원, 이윤석 전 의원, 허영 인천시당위원장. /연합뉴스

### 평화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출마자 TV 토론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 8·5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경환·유성엽·정동영 의원과 민영삼 최고위원, 이윤석 전 의원, 허영 인천시당위원장(기호순) 등 6명의 후보는 지난 20일 전주 MBC TV토론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질타했다.

정동영 후보는 "경제인구 전체를 100명으로 본다면 10명은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60명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30명은 자영업자"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신중한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윤석 후보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의욕이 넘쳐나고 있다"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소상공인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처음부터 실패한 정책은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후보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은 '짜투리'이라며 "경제를 살리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하는데 정부는 서민에게 세금 폭탄만 떠넘겼다. 정치 적폐청산은 잘하는

데 경제 적폐청산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민영삼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재벌에게 일감을 몰아줘 서민이 혜택을 받는 이른바 '낙수효과'보다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정책이 낫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정책이 좋아도 문재인 정부처럼 친노동·친노조 위주로 몰고 가면 부작용이 생기는 데 정부가 이를 전환할 생각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후보와 허영 후보는 낙후된 전북 경제 문제를 짚었다.

최 후보는 "17개 시도중 가장 힘든 지역이 전북이다. 산업경기 하락과 최저임금 부작용, 군산 GM과 조선소 폐쇄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고, 허 후보는 "20년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로 전북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낙후된 지역 경제를 진단한 후보들은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할 적임자'를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및 갑질 근절을, 최 후보는 총선제제 전환과 인제 발굴을 그리고 유 후보는 경제정책 제시를 통한 대안정당 도약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민 후보는 유능한 인재영입과 정책 개발을, 허 후보는 정당 지지율 회복과 정부 견제를, 허 후보는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 분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

# 국회의장단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

### 내일 제헌의회 지도자 참배...이승만·박정희 포함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오는 24일 전직 대통령과 임시정부, 제헌의회 지도자들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라고 국회가 22일 밝혔다.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의장 등은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등 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있는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다.

국회는 보도자료에서 "이 전 대통령은 제헌의회 초대 의장을 지냈고, 각각 9선, 6선 의원을 지낸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국회 논의를 통해

풀어가려고 한 대표적 의회주의자"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의회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국민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참배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어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 있는 독립운동가 묘소를 찾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초대 의장을 지낸 이동녕 선생과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 묘역도 참배한다. 국회의장단의 이번 참배는 협치와 의회주의를 강조한 문 의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도교육감 후보 선거비 도지사 3배 지출

6·13지방선거에서 전남교육감 후보들이 전남지사 후보들보다 평균 선거비용을 3배 가까이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 뛰어든 709명의 후보들은 평균 4798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22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7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 709명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보면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340억2285만원이다.

전남지사 선거 출마자 5명의 선거비용은 모두 22억8518만원으로, 1인당 평균

4억5703만원을 썼다. 막판까지 선거전이 치열했던 전남교육감 선거 비용은 전남지사(5명)보다 후보(3명)가 적었지만 지출액은 37억7202만원으로, 1인당 평균은 12억5734만원을 사용했다. 지사 선거보다 교육감 선거 비용이 2.7배 많이 든 것이다.

지사와 교육감 선거 제한액은 13억2200만원으로 같지만, 접점을 벌인 교육감 선거와 달리 도지사 선거는 판세가 일찍 기울어 후보들이 지출을 줄인 것으로 해석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

##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④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 법률 경매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7월 개강 선풍수 모집 ★

(주)대신경매

토지 기타 추천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 138평 건문 491평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류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로)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2천	① 서구 병천동 현대아파트 (40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	① 광산구 월천동 (공장) 토1989평 건2,400평 ▶ 감평가 68억 → 최저 47억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8평 건272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7억2천	② 광산구 수원지구 수원리제 (20평) ▶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	②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506평 건528평 ▶ 감평가 12억 → 최저 9억9천
③ 서구 치평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③ 북구 운암동 현대아파트 (25평) ▶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1억2천	③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237평 ▶ 감평가 12억 → 최저가 8억4천
④ 북구 용봉동 (2층중 6층)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④ 첨단지구 호반베르디움 (25평) ▶ 감평가 3억5천 → 최저 3억5천	④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10평 건176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9천
⑤ 북구 영남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⑤ 광산구 운암동 남양아파트 (24평) ▶ 감평가 1억6천 → 최저 1억2천	⑤ 남구 백운동 (빌라) 토66평 건145평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함 (경매 직원,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